방탄소년단의 시대…'DANCE' 키워드로 본 성공 비결

퍼미션 투 댄스, 빌보드 1위…'버터'와 바통터치

'영어 3부작' 성공… BTS가 BTS 밀어내는 상황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방탄소년단'을 끌어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졌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PTD)가 24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7주 연속 1위를 지킨 자신들의 곡 '버터(Butter)'와 '바통 터치'하는 기염을 토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영국 스타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경쾌한 댄스 팝 장르다.

'버터'가 올해 '핫100'에서 최장 1위 기록을 세운 '괴물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기록(8주 1위)과 동률을 이루기 직전, 정상에서 내려온 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핫100'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한 이후 10개월2주 동안 발표한 5곡을 연달아 1위에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항간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번 '퍼미션 투 댄스'까지 '핫100' 정상에 올려, 내년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예상도 나온다. '영어 3부작'의 공통된 성공 비결의 키워드를 이번 신곡 제목 '퍼미션 투 댄스' 중 '댄스' 이니셜로 풀어봤다.

Dance : 춤 = 배가시킨 흥겨움

방탄소년단이 무대 위 아이돌로서 너무 착해지고 온순해졌다는 얘기였다. 명실상부 글로벌 그룹이 된 뒤 '아이돌계 U2'처럼 너무 세계적인 메시지에만 주력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시절인 것을 감안해도, 다소 아쉽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춤이 비교적 쉬워서 그런 반응이 컸다. 하지만 안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수화'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극히 일부에서 나오던 이런 목소리가 싹 없어졌다.

Aamy : 아미 = 남녀노소로 확대

아미는 '콘크리트 팬덤'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팬층이 두텁다. 팬클럽 이름 '아미'는 방탄복이 군대와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방탄소년단과 팬들이 언제나 같이 있겠다는 뜻으로 지었다. 긴밀한 관계를 자랑한다. 우상(아이돌)과 팬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여서 가능하다. 비슷한 연령대의 가수와 팬이 공감하며 함께 유대감을 맺어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꾸준히 '학원폭력' '입시' '등골 브레이커'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에 호소력을 갖춘 노래를 들려줬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노래를 쓰고 불렀다. 이런 확고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이름을 알려나갔다.

아미가 친구를 뜻하는 프랑스어 '아미(Amie)'와 발음이 같다는 것도 의미 심장하다.

Nevertheless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유연성

사실 방탄소년단에게 처음으로 '핫100' 1위를 안겨준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이번 '다이너마이트'는 애초 방탄소년단 발매 계획에 없던 곡이다. 앨범 단위로 곡을 내는 방탄소년단에게 디지털 싱글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보통 1년 단위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으로 알려진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이후 다른 청사진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월드 투어가 중단되는 등 예정된 활동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듣게 된 '다이너마이트'는 무척 활기찼다고 멤버들은 전했다. RM은 '다이너마이트' 발매 간담회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싶었던, 살짝 무게가 덜하고 생각 없이 신나는 곡이라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K팝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쓰는 곡이 됐다.

상황에 따라 알맞은 판단을 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유연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Celebrity : 유명인사 = 글로벌 수퍼 그룹

"방탄소년단,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보이 밴드"

지난 5월27일 미국 HBO 맥스 채널에서 방송된 '프렌즈' 특별판 '프렌즈: 더 리유니언(Friends: The Reunion)'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한 방탄소년단을 소개한 문구다.

방탄소년단은 실제 명실상부 '글로벌 수퍼 그룹'이 됐다. 'K팝 그룹'이라는 수식 없이 팀 이름 차제만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하게 된 첫 K팝 그룹이다.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으로 비교되는 팝스타들의 면면만 봐도 이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빌보드에 따르면, 10개월 2주 만에 5곡을 '핫 100' 차트 1위에 올린 방탄소년단의 기록은 지난 1987~88년 9개월 2주 동안 5곡으로 '핫 100' 정상을 차지한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기간 기록이다.

최단 기간에 다섯 곡을 '핫100' 정상에 올린 팀은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다. 이들은 1964년 6개월 동안 다섯 곡으로 핫 100 1위를 차지했다. 비틀스, 잭슨 다음으로 방탄소년단이 대기록을 쓴 것이다.

Encourage : 용기를 북돋다 = 코로나 시대 위로

코로나19 시대 방탄소년단 '영어 3부작'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용기를 북돋는 곡들이라는 점이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어둠을 밝히고, '버터'처럼 달콤하게 녹아 들며, '춤' 추는데 허락을 필요 없다는 자신감까지. 듣고 있으면 활력이 넘치는 곡들이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라이브 콘서트에도 함께 한다.

미국 뉴욕 국제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오는 9월25일 6개 대륙 주요 도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24시간 생중계 공연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에 참여한다.

라이브 공연 무대는 한국의 서울을 비롯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주 시드니, 나이지리아 라고스 등에 준비된다.

'퍼미션 투 댄스'에 참여한 시런을 비롯 메탈리카, 콜드플레이, 위켄드, 도자 캣, 빌리 아일리시 등 어벤저스급이다.

김희선·이현욱, 넷플릭스로…'블랙의 신부' 캐스팅

욕망 따라가는 현실풍자극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 신부'에 배우 김희선, 이현욱, 정유진, 박훈, 차지연이 21일 캐스팅됐다.

'블랙의 신부'는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혹은 유지하기 위해 결혼과 재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현실풍자극이다.

김희선은 강남 중산층 주부로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서혜승 역을 맡는다.

'마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현욱은 자수성가한 벤처기업 회장 이형주로 변신한다.

모두가 탐내는 블랙 등급의 신랑감을 연기한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로맨스는 별책부록' 등에서 눈도장을 찍은 정유진은 최상류층에 속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진유희 역을 맡았다.

'태양의 후예'에서 최우근 중사 역으로 이름을 알린 박훈은 잘나가는 교수이자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두고 최유선과 갈등을 벌이는 차석진 역을 맡았다.

뮤지컬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차지연은 결혼정보회사 '렉스'의 안주인이자 대표인 최유선을 연기한다.

김채연, YK미디어플러스와 전속계약

배우 김채연이 YK미디어플러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1일 YK미디어플러스는 "특유의 순수함과 밝은 매력의 배우 김채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배우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채연은 지난 2019년부터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15~18대 하니로 활동하며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렸다.

현재 SBS 서바이벌 가족 퀴즈쇼 '퀴즈몬'에서 진행자로 활약 중이다.

한편 김채연과 인연을 맺은 YK미디어플러스는 최근 배우 송창의, 송영규 등과 전속계약 소식을 전했다.

티빙 드라마 '더 맨션' 임지연·윤균상 출연

티빙 오리지널 '더 맨션'에 배우 임지연, 윤균상이 출연을 확정했다.

2022년 상반기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더 맨션'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라진 언니의 진실을 쫓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임지연은 언니의 실종을 추적하는 호텔 계약직 직원 '지나'로 변신한다.

이제는 위험한 곳이 되어 버린 장미맨션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수상한 이웃들과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지나의 불안을 내밀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윤균상이 연기하는 강력계 형사 '민수'는 지나의 말을 믿어주는 유일한 조력자다.

한 번 꽂힌 사건은 끝장을 봐야하는 집요한 행동파로 지나를 도와 지현의 실종 사건을 파헤친다. 누구나 기대고 싶은 나무 같은 남자지만, 그 역시 남모를 어둠을 갖고 있다.

넷플릭스, 2분기 매출 8.4조원 20% 끌어 올렸다

영업이익 2조1210억원 36% 증가

넷플릭스가 올해 2분기(4~6월) 매출을 20% 가까이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2분기 매출액 73억4200만 달러(약 8조4270억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61억4800만 달러)보다 19.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35% 이상 끌어올렸다.

2분기 영업이익은 18억4800만 달러(약 2조121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억5800만 달러) 대비 36% 올라갔다. 순이익은 13억5300만 달러(약 1조5530억원)으로 1년 전엔 7억2000만 달러였다.

구독 가구 역시 10% 가까이 증가했다. 2분기 현재 전체 유료 구독 가구수는 2억900만개로 작년 2분기엔 1억9200만개였다.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에 유료 구독 가구수 순증치는 당초 예상치인 100만개를 상회하는 약 150만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3분기(7~9월)에 유료 구독 가구수 순증이 예상치인 350만개를 달성하게 되면, 지난 24개월 간 넷플릭스 유료 구독 가구수 순증치는 5400만개, 연간 기준으로 2700만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2분기에 유료 구독 가구수 102만개 순증을 기록해 넷플릭스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넷플릭스가 2016~2020년 국내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은 약 7700억원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약 5500억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시장조사 전문 회사 닐슨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는 전체 시간에서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7%이며, 여기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라고 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성숙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아직 더 많은 소비자가 넷플릭스를 선택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넷플릭스는 올해 하반기에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위쳐' '종이의 집' 등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은 시리즈 후속편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23일이 공개되는 전지현 주연 '킹덤:아신전'을 비롯해 공유·배두나가 주연을 맡은 '고요의 바다', 이정재 주연 '오징어 게임', 유아인·박정민·김현주 주연 '지옥', 백종원이 출연하는 '백스피릿' 등 국내 콘텐츠도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

투바투, '빌보드200' 6주 연속 진입

정규 2집 내달 컴백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6주 연속 진입했다.

20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7월24일 자)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가 지난 5월31일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FREEZE)'가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한 계단 상승한 10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앨범은 6월 19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5위로 진입한 이후 6주 연속 차트인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또 '혼돈의 장: 프리즈'는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와 '톱 앨범 세일즈'에서 각각 2위, '월드 앨범' 차트에서 4위를 차지했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혼돈의 장: 프리즈' 타이틀곡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이 18위에 올랐다. 수록곡 '안티-로맨틱'은 19위로 재진입했다.

'안티-로맨틱'은 특히 타인과의 관계를 원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Z세대(Generation Z, Gen Z)의 공감에 힘입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약 2개월 반만인 오는 8월17일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혼돈의 장: 파이트 오어 이스케이프(FIGHT OR ESCAPE)'를 발매한다.

조진웅 첫 단편 영화 연출작,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초청

배우 조진웅의 첫 번째 단편영화 연출작이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며 주목받고 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1일 "조진웅의 단편영화 '력사:예고편'이 제25회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 국제 단편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고 밝혔다.

'력사:예고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왔던 어느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드라마로, '이 시대,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기획 의도를 담았다.